

디지털 인쇄시장 활성화 위한 공동 마케팅 전개

한국후지제록스(주), 서울인쇄센터와 MOU

취재 / 박지연 기자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 www.fujixerox.co.kr)는 지난 4월 28일 서울인쇄센터와 국내 디지털 인쇄 시장 확대 및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인쇄센터는 서울 지역의 인쇄 업체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쇄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한국후지제록스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최신 디지털 인쇄기와 솔루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단법인 서울인쇄센터(www.seoulprinting.com)는 서울특별시의 특화 품목인 인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인쇄단체가 공동으로 2002년 4월 설립됐다. 센터에서는 인쇄문화홍보관 운영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인쇄수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및 데이터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남원호 서울인쇄센터 이사장은 “디지털 콘텐츠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인쇄 환경 또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MOU를 통해 인쇄 업체들이 급변하는 인쇄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업체는 향후 서울 중구 쌍림동에 위치한 서울인쇄센터에 디지털 인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세미나, 전시회, 교육 등을 진행하며 공동 마케팅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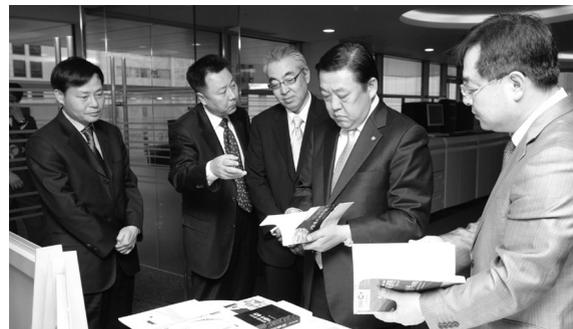
우에노 야스야키 한국후지제록스 사장은 “디지털 인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서울인쇄센터와 함께 협력해 국내 인쇄 시장을 보다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한

국후지제록스가 가진 제품과 솔루션, 그리고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디지털 인쇄 시장과 고객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국내 디지털 인쇄 시장의 규모는 전체 인쇄 시장의 10%인 약 8천5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6년의 3천500억원 규모 대비 약 2.5배 성장한 수치다.



▶우에노 야스야키 한국후지제록스 사장(왼쪽)과 남원호 서울인쇄센터 이사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국후지제록스의 디지털인쇄기를 통해 제작된 출력물들을 살펴보고 있는 광경